21.12.2025 대림 4주일 (4th Sunday of Advent)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9번>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가톨릭 성가 96번> 하느님 약속하신 분	<가톨릭 성가 174번> 사랑의 신비	<가톨릭 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제 1독서 | 이사야서 7,10-14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화답송 |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좌)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우)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좌)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 2독서 | 로마서 1,1-7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18-24

오늘의 묵상글 |

구원은 오로지 하느님의 주도권에만 달려 있고 인간은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그 구원 계획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요셉 성인이 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하느님의 계획을 알립니다. 요셉은 순종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식별을 통하여 하느님 아드님의 지상 아버지로서 자신의 사명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요셉도 마리아처럼 대림의 길을 걸으며 거룩한 자기 아들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일상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협력하는 순종을, 또한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Sr.국춘심 방그라시아)

오늘의 복음 - 마태오 1,28-24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독일어 대림시기 성가 듣기 - 'Wir sagen euch an den lieben Advent', GL 223 (QR 스캔 가능)

그대들에게 복된 대림을 알리니,
보라, 첫 번째 촛불이 타오르네!
거룩한 때가 왔으니,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아! 크게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미 가까이 오셨다.

그대들에게 복된 대림을 알리니,
보라, 두 번째 촛불이 타오르네!
서로를 받아들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아! 크게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미 가까이 오셨다.

그대들에게 복된 대림을 알리니,
보라, 세 번째 촛불이 타오르네!
이제 너희 선함의 광채를
어둔 세상 깊숙이까지 전하여라.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아! 크게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미 가까이 오셨다.

그대들에게 복된 대림을 알리니,
보라, 네 번째 촛불이 타오르네!
하느님께서 친히 오시리라.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어서 깨어나라, 너희 마음들아, 빛이 되어라!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아! 크게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미 가까이 오셨다.

Aid to the Church in Need
ACN AUSTRALIA NEW ZEALAND

Receipt Number: #60380
Date: 18/12/2025

Donation Confirmation

ABN: 62 418 911 594

Aid to the Church in Need - ACN Australia
PO Box 335 Penrith NSW 2751 AUSTRALIA
PO Box 90445 Auckland 1142 NEW ZEALAND
Phone: 1800 101 201
Email: info@aidtochurch.org

Bill To:
Myungsik Yang
Canberra Korean Catholic Community
7 Bindel St
ARANDA ARANDA ACT 2614
AU

Ship To:
Myungsik Yang
Canberra Korean Catholic Community

Thank you for your generous offering!

Payment Details: Credit Card
Transaction ID: #pi_3Sfg17DfADxtdQF61bwfZou5

Once-off Offering:	$1,100.00
Monthly Offering:	$0.00
Shipping total:	$0.00

지난 자선주일 바자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은 위와 같이 교황청 재단 “Aid to the Church in Need”에 기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는 천사가 오지 않는데요” - 발터 카스퍼 추기경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루카 복음서의 이야기는 우리 구원과 온 세상 구원의 시작과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동정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천사에게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마리아의 "예"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진, 우리를 위한 모범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온 교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천사가 나를 찾아온 일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데!” 물론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통상적인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단 한 번뿐인 사건이었지요. 그렇다고 이 단 한 번이란 말이, 비유적인 차원에서도 말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가 묘사하는 천사의 출현 이야기를 대하면서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불가사의한 이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날개를 가진 모습이 아닐 수 도 있지요. 그저 두 발과 두 손, 입 하나를 가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입을 통해, 어쩌면 말하는 이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 마음속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통보를 해 올지도 모릅니다.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면, 그분은 침묵하고 귀 기울여 듣는 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또 마음속 깊이 간직한 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귀기울여 듣는 분이 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외양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쏟고,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흥미롭고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에 마냥 끌려다닙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침묵 가운데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놓치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실로 깊은 차원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에 나는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는가?" 대림 시기는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는 법과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보라!", "기뻐하십시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다른 모든 것과 나를 구별하는 나만의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은 그저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아십니다. 모든 시간에 앞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존재함은 맹목적인 우연의 결과도, 아무 방향 없는 진화의 산물도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인사를 받고 환영을 받는 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은총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갑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유효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사실 하나도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나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파견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파견 사명은 마리아의 파견 사명과는 같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파견 사명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과제와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큰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요.

공지 사항

1. 성탄대축일 미사 안내

＊ 12월 24일(수)

- 6:00pm: 성탄대축일 밤 미사 (영어)
장소: St. Matthew' Church, Page
- 9:00pm: 성탄대축일 밤 미사 (영어)
장소: St.Vincent's Church, Aranda

＊ 12월 25일(목)

- 3:00pm 성탄 대축일 미사 (한국어)

2. 성탄대축일 미사 및 식사 나눔

＊ 미사 후 식사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사목회에서는 '밥, 김치, 고기, 음료'를 준비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누고 싶으신 '음식 혹은 디저트' 등을 한 접시씩 준비해주신다면, 더욱 풍성한 나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식사 나눔을 준비하고,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 새해맞이 성체 조배 및 성시간

- 일시: 12월 31일(수), 11:00pm-12:00am
- 장소: St.Vincent's Church, Aranda

＊ 작년과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하느님 사랑과 기도 안에서 고요히 맞이하고자 합니다.

| 여정 '시즌 6' - 영적 독서 마지막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 '기도의 체험' : ~ 189p -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 : ~ 277p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2월 21일)	요한반
다음주 (12월 28일)	루카반

| 봉헌금 & 교무금 | (12월 13일 ~ 12월 19일)

봉헌금	$ 258	자선주일 특별헌금: $ 200		
교무금	$ 530			
강원혜	권묘순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정은영	주정자
허준				

| 기도 지향 |

＊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들을 위해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故 백종웅 형제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